

만남

2017년 11월
통권 154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나의 위령 성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4
그리스도인의 유머	성인이 되고 싶으면 -----	7
짧은 글 긴 여운	세 차원의 인생-----	7
교리	신앙의 재발견 14~15-----	8
기도 소개	기도가 그리운 날에는-----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선교 : 아시아 그리스도인들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위로 복음을 증언하고, 특히 다른 종교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위령 성월

신학교 3학년과 4학년은 대구 남산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성모당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녁식사 후 묵주기도를 바칠 때면 성모당에서 걸어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거기다 성직자 묘지까지도 산책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성직자 묘지에는 1911년 이후 100여 년 동안 대구대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하신 70여 명의 성직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는 ‘HODIE MIHI, CRAS TIBI’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라틴어입니다. 한 마디로 죽음이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성직자 묘지까지 산책을 하는 시간은 주로 저녁식사 후였기 때문에 노을과 조화를 이루어 기도할 수 있는 보다 더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위령 성월은 거기에서부터 새록새록 의미가 깊어졌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트르르는 죽을 때 격렬하게 저항하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죽었던 어떤 그리스교 신자는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기도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던지 신문에 기사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위령 성월은 먼저 선종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활기를 되찾는 것이 우리가 위령 성월에 기도하는 이유이겠지요.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살아가는 삶조차도 무덤에 묻힌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그분의 은총을 청하는 일이 위령 성월에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위령 성월은 어떠한 의미인지요?

주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시편 84,2-5.9-1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9장 “지극히 거룩한 성전”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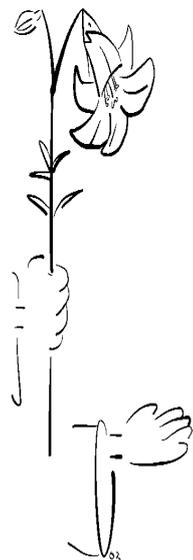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84편 2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84, 2 만군의 주님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3 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
이 몸은 여위어 갑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과 제 몸이 환성을 지릅니다.

4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 4 제비도 제 등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 5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 9 주 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주소서.
- 10 하느님, 저희의 방패를 보소서.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 11 정녕 당신 앞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안에서 간절히 감실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졌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 해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는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며, 혼인성사를 통해 남녀가 주님과 교회 앞에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부모와 교회의 축복 속에 세례를 받고, 한 생애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하며 장례미사가 치러지는 곳, 바로 성당입니다. 성당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유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것은 곧 은총입니다. 삶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9장 “지극히 거룩한 성전” 3,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성인이 되고 싶으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교황직에 있던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하면서, 전례 없이 많은 성인들을 시성했습니다. 그 무렵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수녀님이 마더 데레사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성인이 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수녀님이 기대한 답은 거룩하게 산다든지,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경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더 데레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얼른 세상을 떠나세요. 지금 교황님께서서는 누구나 다 시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 짧은 글 긴 여운 ❖

참새와 나비와 하루살이가 만나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덧, 저녁이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섭섭하여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기에 내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부터는 참새와 나비만이 만나서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 되었습니다. 날이 춥게 되자 참새는 봄이 오면 다시 만나서 놀자고 나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는 한 해 밖에는 살 수 없기에 내년에 새로운 봄이 다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 차원의 인생, 이주연 목사님)

14.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룩한 전례

전례(典禮, liturgy)라는 말은 그리스말 리투르게이아(라틴말 리투르지아)를 번역한 것으로, 본래 이 단어는 ‘백성을 위한 공적인 봉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이 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십자가상 제사를 기념하고 하느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우선 성체성사와 미사성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전달하는 다른 성사들과, 하느님께 교회가 바치는 공식 기도인 시간기도(성무일도)도 전례에 포함됩니다.

전례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절 기념행사와 같은 세속의 예식은 다만 지나간 일을 되새길 뿐이지만, 우리가 전례 중에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의 효과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체성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가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라고 말하면 실제로 죄가 사해집니다. 전례에 참례할 때는 주님께서 실제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끼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례는 사사로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몸에 결합된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제와 교우 단 두 사람이 거행하는 고해성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신자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죄를 사해주는 사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대리자요 그분의 몸에 결합된 모든 이들의 대표로서 고해성사를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전례 중에는 개인적인 소원이나 신심보다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전례를 거행할 때 서로 동작을 맞추고 소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전례는 신자 생활의 정점이며 신앙의 활력이 샘솟는 원천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형제자

매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모두 전례 거행 중에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기도하고 전교하고 애덕을 실천해야 하겠지만, 가장 뚜렷하고 힘차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전례, 그 중에서도 특히 미사성제를 통해서입니다. 신자는 전례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전례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신앙의 재발견 ❖

15. 전례력과 전례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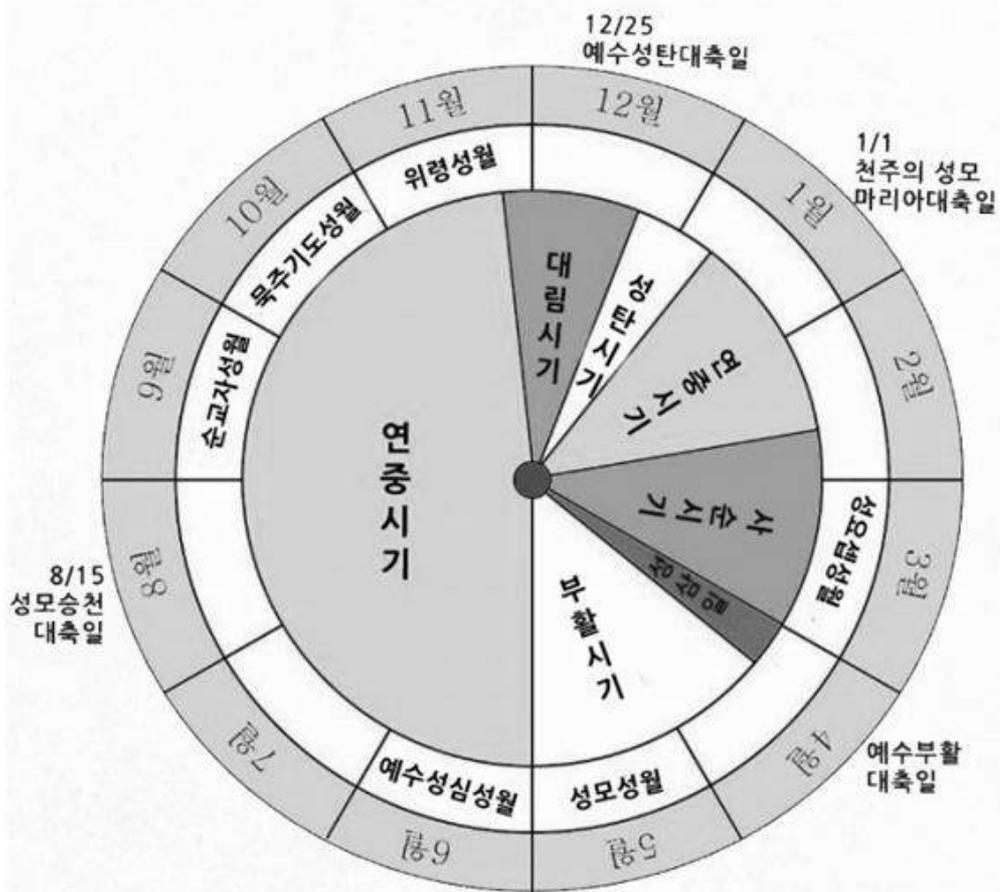
교회는 일 년의 주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기념하며 경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수난,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 전체를 1년에 걸쳐 기념하고 묵상하는데 이를 ‘전례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례주년을 시기, 달, 날짜순으로 종합하여 달력으로 표시한 것을 전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례력은 교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교회력 또는 교회달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례력을 만들 때는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중심축으로 해서 만듭니다.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 대축일은 춘분(春分, 3월 20일 또는 21일)이 지나고 보름날이(보름달, 음력 보름)이 지난 후에 오는 첫 주일을 예수 부활 대축일로 지냅니다. 이 두 큰 축일을 둘러싸고 대림, 사순, 부활, 그리고 연중 시기로 전례주년을 구성하여 신자들의 일 년 전례 생활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 동안으로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간을 상징합니다. 성탄 시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시기로 12월 25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 4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부활 시기는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

일간을 축제의 기쁨으로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는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 외 구원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전례주년은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연중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종말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경축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과 그에 이어지는 한 주간으로 끝이 납니다. 전례주년에 맞추어 성당의 장식과 제의의 색깔이 바뀌고, 전례의 경문도 변하며, 성경 독서도 가해, 나해, 다해로 돌아가면서 달라집니다. 또한 1년의 모든 날을 전례일로 간주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 중요도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으로 분류하고 미사와 시간전례(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바치는 공적기도)로써 그 날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전례주년에 따라 신자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순시기에는 금식하는 날이 이틀 있고, 사순과 대림 때에는 판공성사를 받아야 하며, 부활시기와 성탄 시기에는 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리운 날에는(김명수)

주님,
 기도가 잘되지 않는 것은
 제 영혼을 다른 무엇들에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푸른 하늘에서 조용히 자유롭게 떠가는 희디흰 구름들과
 바닷가에서 한없이 부드럽이 쌓이는 햇살을
 저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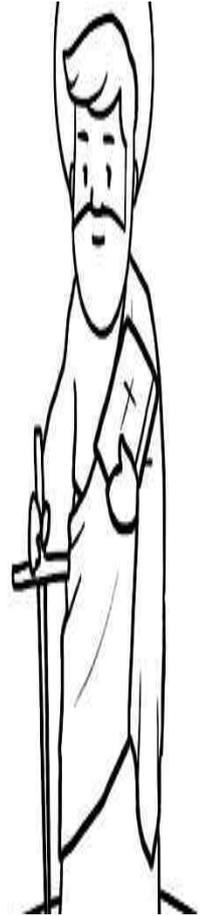
그리고는
 기도의 문을 열고
 하느님 속에 들어가 평화를 빌면서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감격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힘찬 평화를 허락하시어
 저의 전체가 순수한 기도 한줄
 “뜻대로 하소서.”로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
 제 기도의 음성이 조금씩 맑아지게 하소서.
 깊은 고독의 그윽한 하늘을 날게 해 달라는 기도
 뜨거운 사랑의 덩에 걸리게 해 달라는 기도
 영혼에 신비한 빛을 머물게 해 달라는 기도가
 저의 투명한 침묵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소서.

작은 풀잎들에도
 여린 바람들에도
 아침놀과 저녁놀에도
 저의 하루에도

하느님의 숨결이 뛰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 충분히 느끼게 하소서.
 아멘.



질문

저는 고등학생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 모두 유아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자로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몇 번 다녀오더니 이제는 주일이면 으레 교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성당은 가지 않고요. 친한 친구들도 많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친절하고 재미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아이들을 막아도 보았지만 제가 말리니까 더 화를 내면서 교회에 간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김길민 신부님(수원 광주성당 주임, 교구 사법대리)

미국의 한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교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걱정한 끝에 1년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1년 후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덕분에 이스라엘에서 지내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는 동료 유대인을 찾아가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개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돼 돌아왔어요.” 둘은 탄식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유대인의 회당인 시나고그를 찾아가서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사실은 나도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으나...”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지요. 언제부터인가는 내 손을 떠나고, 내 뜻을 잘 따르지 않을 때 어쩌할 바를 모릅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하느님도 자식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종교에 가보는 경우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신앙이기 보다는 부모의 단순한 강요에 의한 종교라면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가 깊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명령과 지시만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함께 결정하는 관계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녀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아주 깊이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

다. 부모의 신앙심이 확고하다면, 아이들이 철들면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강한 집안에서는 구성원이 냉담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재미를 주는 곳을 찾아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나요? 혹시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른들의 기준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도 아직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심이 확고하고,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그 다음에 성당 자체가 여러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성당 안가면 아이에게 다양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방법은 아이들이 크면서 역효과가 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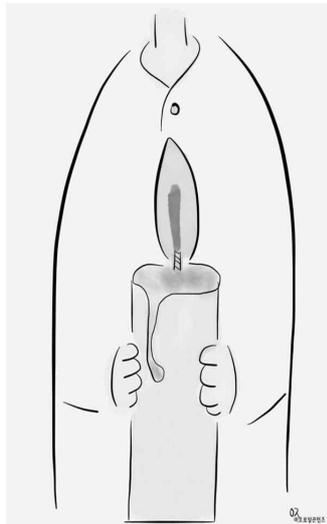
윤도관 (사)의 가슴과 함께

6.12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 5,4



Blessed are they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Mt 5,4

비오로말콘테츠

비닐우산의 추억(살레시안 칼럼에서)

어렸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길거리에서 파란색 비닐우산을 파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아버지께서도 비닐우산을 쓰고 퇴근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닐우산 하나에 500원이었던가 1000원이었던가... 가격에 비해 나쁘지 않은 우산이었지요.

나름 재질도 좋았습니다. 대나무 막대에 대나무 살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 파란색 비닐을 붙여서 만들었었지요. 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우산으로서 시중에서 파는 우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닐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어린 시절에 비오는 날, 제대로 된 우산보다 비닐우산을 즐겨 썼습니다. 특별히 나갈 일이 없는데도 비닐우산을 들고 비오는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비닐우산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글로 형용할 수 없는 소리지요. 비닐우산을 써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우산을 쓰고 길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쓰고 다니는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곤 했습니다.

손에 좋은 우산을 들고 있음에도 비닐우산을 사고 싶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우산을 살 수 없었지요. 혹시 누군가 버린 비닐우산이 없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비닐우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사람에게 사탕 하나 건네주고 싶을 정도로 비닐우산 발명자가 존경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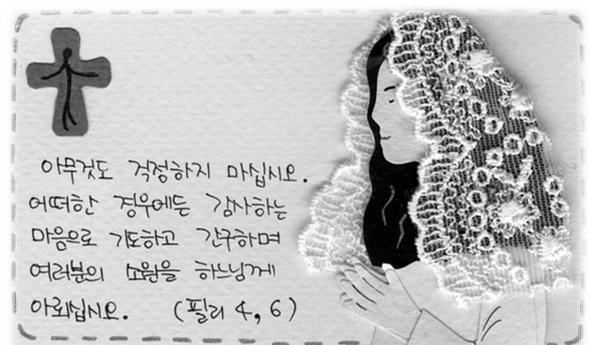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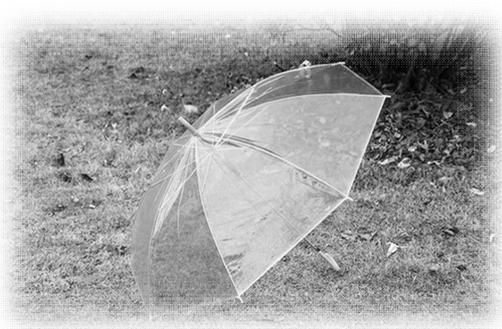
얼마 전 비가 내린 날, 외출을 하려고 우산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투명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우산입니다. 3000원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은품으로 받은 좋은 우산이 있었지만 한쪽에 세워 둔 투명 비닐우산을 꺼냈습니다. 요즘 나오는 투명 비닐우산도 재질이 좋고 튼튼해서 오래 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이 투명하다보니 사방으로 시야가 확보 되어 길을 다니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때의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간간히 파란 비닐우산이 생각납

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꼭 하나 얻고 싶습니다. 파란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기대했는데, 요즘 편의점 비닐우산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오래 쓰지만, 파란색 비닐우산처럼 낭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때의 그 기분으로 비오는 날 길을 걷습니다.

가끔씩 비닐우산과 더불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흐뭇이 웃습니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놀던 그 때,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먹으면서 친구들과 잡기놀이 하던 그 때, 문구점 불량식품 먹으면서 당을 보충하고 제 입을 즐겁게 했던 그 때.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힘들고 지칠 때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억이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복잡다양한 일들을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삶의 활력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총의 체험을 떠올리며 그 희망으로 사는 우리가 될 때,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충실히 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비닐우산의 추억처럼, 하느님께서 제게 속삭이시던 말씀을 마음속에서 꺼내 봅니다.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소리를 좋아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늘을, 내일을 충실히 삽니다.

좋은 추억이 우리에게 웃음이 되고 힘이 되듯,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거룩한 은총 체험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다시 체험하리라는 희망으로 지금을 삽니다. 비닐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향연처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울리는 경쾌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St. Silvia)	김점선 권우애 최효진	17일	(헝가리) 엘리사벳 (St. Elizabeth)	허(김)영란 김에리자
5일	(신약) 엘리사벳 (St. Elizabeth)	송옥자 오세주 박민주 최백화 한경자 김경미 (이사벨)	22일	체칠리아 (St. Cecilia)	김애란 이영희 이소희 이민희 신현숙 김은정 김보숙
10일	레오 (St. Leo I)	최장용 김현일	30일	안드레아 (St. Andrew)	김영경 권지연
17일	빅토리아 (St. Viktoria)	김귀숙 구자옥		안드레아스 (St. Andreas)	김삼용 김성민 허길조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추연구(B)	22일	세실리아 (마리세실)	조영실(B) 박샘솔(B) 최모란(B)
16일	젤뜨루다	김순자(B)	24일	플로라	유혜선(B)
17일	엘리사벳 (St. Elizabeth)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 11월 성가번호 ❖

11월	입당	봉헌	성체	파견
5일	65	215	156	436
12일	68	212	160	229
19일	32	216	172	228
26일	가족미사			

❖ 1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5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치수(도밍고) 이영희(클라우디아)	이현묵(요셉) 최장용(레오)	4구역
12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주일학교	청년회
19일	최성자(벨라멧다)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방영자(젼마)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26일	가족미사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2일
계(€)	214.24	262.25	270,45	251,20	183.72
2차 헌금					181,30
헌납금	100.00	100.00	0	270.00	270.00
구좌입금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510.00 * 헌납금 총 합계 1,250.00				

❖ 자진헌납금 ❖

2017년 9월 24일 — 2017년 10월 22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최승진, 정순문, 강순행, 노정자, 정명옥, Moon— Sebastian 수진,
 배성우, 정정숙, 김기연, 이정은, 현영애, 김민옥, 김민수,
 박성아, 신옥희, 심동근, 채규순, 한선지, 윤예진, 한규호,
 서세원, 최순남,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중지, 이궁중, 이석우, 이정수, 이수용,
 김용일, 김 건, 김경미, 김형용, 우동천, 옥종인, 진윤희,
 문경희, 한말조,

구좌입금 :

Eilinghoff 정숙, 홍경영,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유석, 방조 영자,
 최화영, 김동수, 김원자, 최성자, 허채열, 김부남, 백정선,
 허두옥,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예,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준배,
 어길조, 영희 Eggerstedt,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contents.pauline.or.kr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종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2. 11월 2일 목요일 위령의 날,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는 11시에 Friedhof-Ohlsdorf Kapelle 13에서 연도와 함께 봉헌됩니다. 미사 후 먼저 돌아가신 교우들의 묘소참배로 무덤축성과 함께 꽃과 촛불을 봉헌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써 함께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사장소 주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3. 11월 2일 목요일 저녁미사는 평소와 같이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예비신자 교리반은 11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신자분들도 초대합니다.

5. 11월 5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6.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임신부님은 휴가를 다녀옵니다. 휴가 기간 동안 평일미사는 남영우(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봉헌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산교구의 선배신부님께서 오셔서 함께 폴란드에 다녀오기로 갑자기 일정이 생겼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7. 꾸리아 연차총친목회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미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레지오 단원들과 협조 단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8. 가정방문과 축복은 11월에도 계속 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9월 30일 김영자(테레사) 회장님의 따님, Esther Pölking 자매님이 Jens Drecoll 형제님과 Visbek 성당에서 혼인하셨습니다. 새 가정에 무한한 주님의 은총을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박영희(소피아) 자매님의 남편, Prof, Klaus Huber 형제님이 지난 10월 3일 선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매님과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4. 그동안 전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박희정(베로니카) 자매님이 학업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자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5. 11월 전례부터 강은지(루치아) 자매님과 김혜림(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이 함께 전례를 맡아 수고해 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0월 정기미사는 10월 14일(토), 연중 제 28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이날 미사에는 최한우(바오로) 형제님댁을 방문하신, 거제 옥포성당 최현식(사무엘) 형제님과 우영미(빈첸시아) 자매님이 함께하셨습니다.
3. 또한 하노버 성당의 이지승(로마나) 자매님께서 오스나브뤽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날 미사에 함께 참례하였습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속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역장모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 영 자 파 울 라	040/ 3865 3332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재미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 (정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속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속 안 나	6729549		
정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1월 중 행사 예정표(위령 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모든 성인 대축일		
2	목	위령의 날	11:00 미사(묘지)	
3	금			
4	토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5	일	연중 제31주일	사목협의회	
6	월			주임신부님 휴가 (폴란드 보르츠와프, 아우슈비츠, 쿠라쿠프 등)
7	화	입동		
8	수			
9	목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10	금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11	토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오스나브뤽 공동체
12	일	연중 제32주일	청년 소공동체 모임	
13	월			
14	화			
15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6	목			
17	금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2구역 소공동체	
18	토			하노버 공동체
19	일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20	월			
21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22	수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소설		
23	목		연령회	
24	금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25	토		15:00 연차총천목회	
26	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성서 주간		가족 미사
27	월			
28	화			
29	수			
30	목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